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발달*

Children's Recall of Social Behavioral Information about Others

권 애 란**

Kwon, Ae Ra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age differences in children's recall for information about aggression, prosociability, and social withdrawal of others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likeability on children's recall for social behavioral information. The subjects were 160 children, 20 boys and 20 girls each at 6, 8, 10, and 12 years of age. The subjects listened to descriptions of the social behavior of a hypothetical boy and girl and subsequently reported their recollections. These descriptions were drawn from Bukowski's(1990) study, the Pupil Evaluation Inventory, and the Pittsburgh Adjustment 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2-way ANOVA, paired T-test, and correlation.

Differences across the age levels were found in the number of behaviors correctly recalled for the behavioral descriptions of aggression, prosociability, and social withdrawal. Descriptions of aggressive behavior was recalled more when children listened to a hypothetical boy than to a hypothetical girl. Additional analyses revealed that at 6 years of age, children recalled more descriptions of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 than of withdrawal and at 10 and 12 years of age, children recalled more descriptions of withdrawal behavior than of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s. The more negative the children's affective evaluations of the withdrawal behavior, the better they recalled the withdrawal behavior.

I. 서 론

최근 사회 인지 심리학자들은 개인에 대한 지각을 사회적 도식 모델(social schema model)의 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사회적 지각은 인지 구조(cognitive structure)나 사회적 도식(social schema)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회적 도식은 타인의 행동이나 특성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러한 정보를 기억속에서 어떻게 범주화시키고

부호화시키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후에 정보를 기억해낼 때 기억 저장소에서 쉽게 회상되도록 결정한다는 것이다(Cantor & Mischel, 1977; Taylor & Crocker, 1981).

이러한 사회적 정보처리과정(social information processing)을 기초로 개인에 대한 지각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또래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또래 행동의 직접 묘사(Coie & Pennington,

* 본 논문은 1992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연구조교

1976)와, 또래 행동의 평정(Ledingham, 1981; Younger, Schwartzman, & Ledingham, 1985, 1986), 그리고 또래 행동에 대한 회상 과제(Bukowski, 1990; Younger & Boyko, 1987; Younger & Piccinin, 1989)를 이용하여 아동의 지각 능력에서의 발달적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지각 능력의 발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Younger와 그의 동료들(1986)은 아동의 단순한 지각 능력의 발달뿐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정보의 종류가 아동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발달에 초점을 둔 많은 연구에서는 또래에 대한 사회적 정보의 주내용으로 부적응(maladjustment)행동이 평가되었으며, 이때 부적응 행동은 공격성과 위축성이 또래의 사회적 행동의 주요 차원으로 대표되고 있다(Achenbach & Edelbrack, 1978; Coie & Pennington, 1976; Quay, 1986; Rubenstein, Fisher, & Iker, 1975; Younger & Boyko, 1987). 그러나, 또래에 대한 사회적 정보의 또다른 주요 차원은 사회적으로 유능한(competent)행동이며, 그중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적 정보처리과정에서 또래 정보에 대한 아동의 기억 능력이 성도식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성 정보는 다른 정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Nesdale & McLaughlin 1987), Bukowski(1990)는 아동의 또래에 대한 지각은 또래의 사회적 정보 유형이 요구하는 성도식에 의해 중재된다고 제안하였다.

또래 행동에 대한 아동의 회상을 기초로 하는 연구에서 몇가지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또래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또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아동의 해석에 영향을 주고(Hymel, 1986), 또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주위에 영향을 미

친다(Dodge, 1980; Dodge & Frame, 1982; Hymel, 1986)는 것이다. 이에 대해 Higgins, Kuiper, 그리고 Olson(1981)은 사회적 정보에 대한 아동의 지각 능력은 아동의 정서적 경험의 원인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관련이 있으며, 이때 인지적 해석은 주로 타인에 대한 평가적 판단(good-bad)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특히 사회적 행동정보의 종류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에 의한 판단 즉, 선호도(Likeability)에 따라 아동의 회상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지각 발달에 미치는 정서적 반응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또래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사람 또는 행동적 복잡성의 동등한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는 개인들(Lewis & Rosenblum, 1975)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본 연구에서 회상과제로 사용되는 내용을 볼 때, '타인'이 적합하며, 본 연구에서 타인은 연구 대상과 같은 연령의 가설적 또래(hypothetical peer)를 의미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인이 보이는 공격적, 친사회적, 그리고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따라 아동이 부호화하고 기억해내는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타인의 성 정보는 아동의 회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고자 하며, 또한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능력과 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선호도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발달

1-1. 타인의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타인의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타인의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능력과 아동의 선호도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인 지각에서의 사회 인지 접근법

최근 대인 지각(person perception)을 이해하기 위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중의 하나가 사회 인지 접근법(social cognition approach)이다. 이 접근법은 지각자에 의한 판단 과정에서 정보의 획득, 표상, 인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첫째, 지각자의 인지 구조의 속성이 타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존재하는 인지적 틀의 기초하에, 지각자가 기억속에 저장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 셋째, 지각자가 정보를 기억속에서 판단하고 인출하는데, 인지적 표상이 어떻게 사용되는가(Hamilton, 1981)이다.

지각자의 이러한 타인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단위는 내적인 인지구조 즉, 도식(schemata)으로서, 이는 경험을 구성하고 행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하고 추론과 해석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이다(Bartlett, 1977).

이처럼 개인이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도식이 기억속에서 정보를 재구성하

는 기본 구조가 된다(Bartlett, 1932)고 볼 때, Schank와 Abelson(1975)은 지각자는 잘 학습된 개념적 도식(conceptual schemata)에 따라 사회적 정보를 능동적으로 범주화하거나 부호화함으로써, 학습하고 기억한다고 제안하였다(Cantor & Mischel, 1977, 재인용). 즉, 지각자가 잘 정의된 도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시되는 사회적 정보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고, 기억속에서 쉽게 보호화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회상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Younger & Boyko, 1987).

2. 선행연구

이상의 정보처리과정을 기초로 아동의 타인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행동정보의 종류에 따른 아동의 회상 발달에 관련된 연구와 특히, 성과 관련된 정보가 아동의 회상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아동은 사회적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참여자이자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에서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또래의 사회적 기능의 평가자로서 선택되고 있다(Younger et al., 1986). 이때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지각 발달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또래의 부적용 행동 즉, 공격성과 위축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성인의 지각과 비교해 볼 때 불분명하다는 것이다(Rubenstein, Fisher, & Iker, 1975).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또래의 부적용 행동에 대해 아동으로 하여금 직접 묘사를 하게 한 Coie와 Pennington(1976)의 연구에서, 아동이 또래의 부적용 행동을 지각할 때 아동기 초기에서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공격성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반면 위축성은 또래의 부적

용 행동을 묘사할 때 초기 청년기에 이르러서야 언급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또래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서 두 범주의 상대적 중요성은 지각하는 아동의 연령과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Younger와 그의 동료들(1985)은 또래의 공격적, 위축적, 그리고 유능한(competent/ likeable)행동에 대한 아동의 또래 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조직을 밝히기 위해,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초기에는 사회적 평가 차원(social evaluative dimension)에 의존하여 아동은 유능한 행동에서 부적응 행동을 구별하였고, 공격적인 행동과 위축적인 행동사이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두번째 차원 즉, 능동적-수동적 차원(active-passive dimension)이 나타났는데, 이를 기초로 초기 청년기에는 부적응 행동에서 공격적인 행동과 위축적인 행동을 구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지각에서 연령 관련 변화는 아동이 또래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때 그 차이를 더 잘 반영한다고 제안하면서, Younger와 Boyko(1987)는 아동이 또래 행동에 대한 정보 처리과정에서 사회적 도식을 사용하나, 모든 연령에서 공격성과 위축성에 대한 도식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6-12세 아동의 자유 회상을 연속적으로 평가한 결과, 아동의 공격성 정보에 대한 회상능력은 연령에 따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위축성 정보에 대한 회상능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회상 능력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한 Cole, Frankle과 Sharp(1971), McGilly & Siegler(1989)등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정보의 종류에 따라 회상 발달이 다르다는 위의 연구 결과들을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정보처리과정에서 성도식은 정보를 조직하기 위한 범주적 체계로 사용되며(Taylor, Fiske, Etcoff, & Ruderman, 1978), 이때 성도식에 관련된 군집화(gender-grouping)는 지각자로 하여금 성을 분류하게 하고, 자기 조정(self-monitoring)으로서 타인의 행동을 예견하게 하고 성에 관련된 사회적 기대를 이해하게 한다(Martin & Hlverson, 1981).

기억 과정을 통해 성도식의 역할을 연구한 Koblinsky와 Cruse(1981)는 아동에게 두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 주인공이 수행하는 성역할에 대한 아동의 기억 능력을 조사한 결과, 대상 아동 모두 주인공이 그의 성에 유형화된 성격적 특성과 활동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더 잘 기억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Koblinsky와 Cruse(1981)는 성도식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도록 기억을 조직화하는 체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도식과 비추어 볼 때 비전형적인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영민(1986)은 아동은 성 상동화 정도에 관계없이 여자가 남성적 활동을 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성적 활동을 하는 그림 자극을 더 잘 기억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Jennings(1975)는 비전형적이고 신기한 것일수록 기억에 더 오래 분명히 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성도식의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타인의 사회적 행동 즉, 공격적, 친사회적, 그리고 위축적인 행동정보를 기억하는데 타인의 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이 능동적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을 포함시켜 설명한다면, 인간의 인지 과정에 대해 좀 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

자들은 기억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는데, 정서와 기억을 설명하려는 초기의 시도는 Bartlett(1932), Freud(1914), 그리고 Thorndike(1927)의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기억에서 정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은 임상적인 문제, 인지적인 정보처리과정, 지각, 사회적 동기, 태도, 감정 등에 초점을 두고 정서와 기억의 관계를 설명해 왔다(Higgins, et al., 1981). 최근, Higgins와 그의 동료들(1981)은 정서와 다른 동기적인 변인들이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설명되어야 하며, 정보처리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은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인지 과정에 미치는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적 정보는 부호화, 저장 그리고, 인출 과정에서, 지각자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특히, 지각자의 정서적 경험의 원인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타인에 대한 평가적 판단(good-bad)에 의해 이루어진다(Higgins et al., 1981).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회상과제에서 정서의 역할을 연구한 Isen, Shaker, Clark와 Karp(1978)는 과제 수행전에 성공을 경험한 피험자는 긍정적인 정보에 대한 회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반면, Higgins와 그의 동료들(1981)은 특별한 개인에 대한 분노는 지각자로 하여금 그 개인에 대한 정보에 더 주의를 집중시켜 회상 수행을 증가시켰다고 제시하였으며, Butler(1984)는 아동이 싫어하는 행동이 타인에 의해 나타났을 때 긍정적인 행동보다 부정적인 행동의 예를 더 잘 회상하였다고 보고하였다(Yonuger & Piccinin, 1989, 재인용).

이처럼 지각자의 정서적 경험에 따라 지각자의 정보처리과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면,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의 종류에 따른 아동의 회상능력에 아동의 감정적 판단 즉, 선호도가 미치는 영향

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6, 8, 10, 12세 아동 각 4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대상 국민학교 1개, 중학교 1개와 해당 연령별로 각 1학급씩 이 연구자에 의해서 임의로 선정되었으며, 각 학급내에서 남·여 아동 각 20명씩, 40명이 무선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시되는 타인의 성에 따른 두가지 조건에 아동이 무선으로 배정되었으며, 각 조건별 남 여 아동의 수는 동일하게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 대상에게 회상 과제로 제시될 사회적 행동정보로서, 공격성, 친사회성, 그리고 위축성에 대한 행동을 묘사한 목록을 사용하였다. 이는 Bukowski(1990)가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행동적 묘사를 기초로, 아동의 행동 평정도구인, Pekarik, Prinz, Liebert, Weintraub와 Neale(1976)의 The Pupil Evaluation Inventory(PEI)와 Ross, Lacey와 Parton(1965)의 Pittsburgh Adjustment Survey Scales(PASS)에서 사용된 공격성, 친사회성, 그리고 위축성에 대한 행동 목록에서, 본 연구자가 각 행동에 적합한 목록을 선정하여 아동의 이해에 맞게 제작하였다.

회상 과제로 사용된 본 연구의 도구는 행동정보에 따라 각각 1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에게 행동 목록을 제시할 때,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으로 들려주었다. 각 행동정보를 제시하고 회상검사가 끝난후에, 그러한 특성을 가진 아동과의 친구관계 희망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때 아동의

반응은 Younger와 Piccinin(1989)의 연구에서 사용한 5점 척도를 기초로 분류하였다(1점=절대적인 부정, 2점=조건화된 부정, 3점=결정 불가능, 4점=조건화된 긍정, 5점=절대적인 긍정).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연구 도구를 개발하고 그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자가 Bukowski(1990)연구 도구에서의 행동목록과 아동의 행동 평정도구인 PEI와 PASS원본에서 공격성, 친사회성, 그리고 위축성 각 행동의 종류에 따른 항목에서 부하량이 큰 순서로 15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를 20명의 아동학 전공자에게 연구자가 작성한 목록이 각 행동에 적합한 행동적 목록인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10개씩 선정하게 하였다. 이는 회상 과제에서 목록이 대략 7개 정도 일때 파지를 통해 기억속에서 조직할 수 있는 반면, 그 이하일때는 이러한 조직 효과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은 채 순서대로 완전히 회상한다(Murphy & Ruff, 1982)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목록을 10개씩 제시하기로 하였다. 각 행동정보별로 선정된 10개의 목록에 대해 아동학 전문가에게 안면 타당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남 여 아동의 비율을 동일하게 해서 각 연령별 아동 1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각 행동목록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만 6, 8, 10, 12세 아동 각 40명씩을 대상으로 1992년 3월 10일부터 3월 27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을 국민학교 교사 회의실과

중학교 음악실에서 연구자가 개별 면접하였으며, 이때 아동이 회상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였다. 한 아동당 면접 소요시간은 약 15분정도였다.

대상 아동은 각 연령내에서 행동정보가 남자 이름으로 제시되는 집단과 여자 이름으로 제시되는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었다. 이때 각 행동정보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제시되었으며, 제시되는 인물은 대상 아동이 모르는 아동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각 행동정보의 제시 순서에 따라 회상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 각 행동정보를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세가지 행동정보를 각각 2번씩 읽어주었으며, 두번째 읽어준 다음, 아동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기억해보도록 지시 하였으며, 아동이 더이상 생각나지 않는다고 할 때 회상을 종료시켰다. 각 행동정보에 따른 회상검사가 끝난 후, 각 행동정보의 특성에 대한 아동의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너는 ○○가 너의 친구였으면 좋겠니?"라는 질문을 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기록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4. 자료의 처리와 분석

각 행동정보에 따른 회상점수는 이중회상(double recall), 침입(intrusion)등은 회상 오류로 보고 제외시켰으며, 내용상 축어적인 의미는 올바르게 회상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채점되었다. 이때 Irwin 과 Bushnell(1980)의 공식을 이용한 채점자간 신뢰도는 .97이었다. 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선호도는 아동의 응답을 5점 척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평정되었다. 이때 단순상관을 이용(Younger & Piccinin, 1989)한 채점자간 신뢰도는 .96이었다.

채점된 자료는 연구 문제에 따라 two-way ANOVA, Student-Newman Keuls, 그리고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발달

(1) 타인의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발달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

| 연령 타인의 성 | 6세 | 8세 | 10세 | 12세 | 전체 |
|---------------|----------------|---------------|---------------|---------------|----------------|
| | (n=40) | (n=40) | (n=40) | (n=40) | (n=160) |
| 남 (n=80) | 4.90 (1.07) | 5.20 (.62) | 5.05 (.69) | 5.65 (.93) | 5.20 (.88) |
| 여 (n=80) | 3.90 (1.17) | 4.00 (.79) | 4.60 (.94) | 4.60 (.86) | 4.45 (1.08) |
| 전체 (n=160) | 4.40 (1.21) | 4.60 (.93) | 4.83 (.84) | 5.48 (.91) | 4.83 (1.06) |

()안은 표준편차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에서 아동의 연령($p < .001$)과 타인의 성($p < .001$)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

<표 2>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의 이원변량분석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연령 | 26.15 | 3 | 8.72 | 10.75*** |
| 타인의 성 | 22.50 | 1 | 22.50 | 27.74*** |
| 연령×타인의성 | 5.15 | 3 | 1.72 | 2.12 |
| 오차 | 123.30 | 152 | .81 | |

*** $p < .001$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증가하였으며, 또한 타인의 성이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에, 공격적인 행동정보를 유의하게 더 많이 회상하였다. 연령에 따른 아동의 회상 점수의 차이가 어떤 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tudent-Newman Keuls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점수는 10세와 12세 사이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2) 타인의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발달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F = 16.00, p < .001$), 타인의 성에 의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사

〈표 3〉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

| 연령 타인의 성 | 6세 (n=40) | 8세 (n=40) | 10세 (n=40) | 12세 (n=40) | 전체 (n=160) |
|---------------|----------------|---------------|---------------|----------------|----------------|
| 남 (n=80) | 4.45 (1.19) | 4.60 (.94) | 4.80 (.83) | 5.65 (.74) | 4.88 (1.04) |
| 여 (n=80) | 4.35 (.99) | 4.50 (.83) | 5.10 (.72) | 5.75 (1.02) | 4.93 (1.04) |
| 전체 (n=160) | 4.40 (1.08) | 4.55 (.88) | 4.95 (.78) | 5.70 (.88) | 4.90 (1.04) |

()안은 표준편차

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점수는 타인의 성에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udent-Newman Keuls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10세와 12세 아동이 8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3) 타인의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발달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위축적인 행동

〈표 4〉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

| 연령 타인의 성 | 6세 (n=40) | 8세 (n=40) | 10세 (n=40) | 12세 (n=40) | 전체 (n=160) |
|---------------|----------------|---------------|---------------|----------------|----------------|
| 남 (n=80) | 3.30 (1.22) | 4.00 (.92) | 5.50 (.94) | 6.75 (1.07) | 4.89 (1.69) |
| 여 (n=80) | 3.35 (.88) | 4.45 (.94) | 6.00 (.92) | 6.40 (1.05) | 5.05 (1.54) |
| 전체 (n=160) | 3.33 (1.05) | 4.23 (.95) | 5.75 (.95) | 6.58 (1.06) | 4.97 (1.62) |

()안은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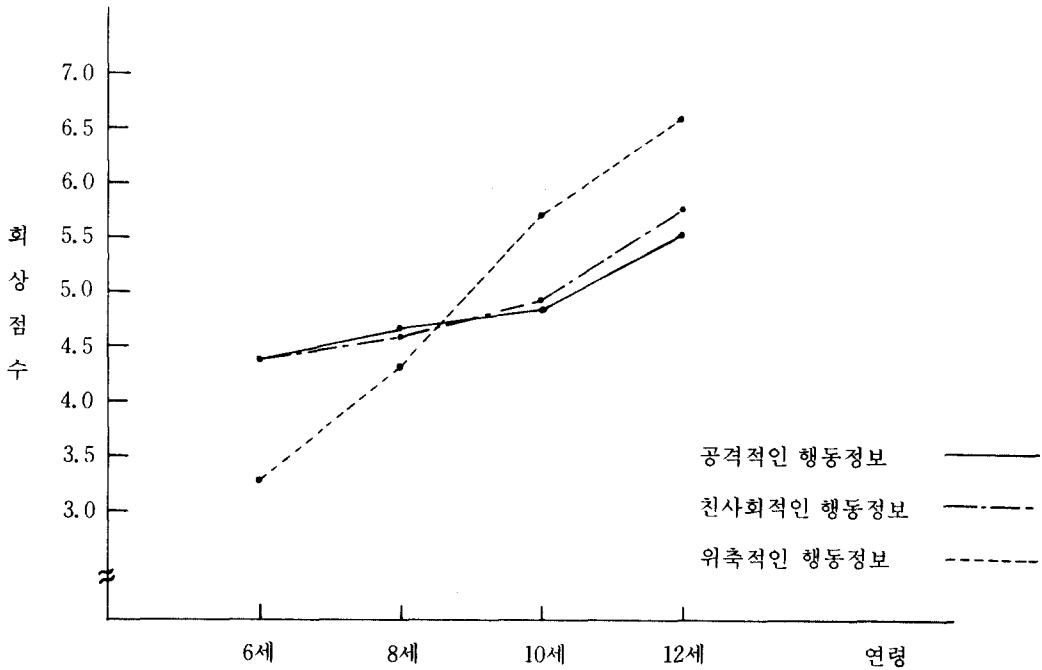
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점수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F = 86.37, p < .001$), 타인의 성에 의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타인의 성에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udent-Newman Keuls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점수는 6세와 8세, 8세와 10세, 10세와 12세 사이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의 종류에 따른 아동의 회상 점수(표 1, 표 3, 표 4참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각 연령내에서 행동정보의 종류에 따른 아동의 회상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내에서 행동정보의 종류를 들씩 짝지어 비교하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세 아동의 경우, 위축적인 행동정보보다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였으며($p < .001$),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8세 아동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를 위축적인 행동정보보다 유의하게 많이 회상하였으며($p < .05$),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위축적인 행동정보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10, 12세 아동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축적인 행동정보를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보다 더 많이 회상하였다($p < .001$). 그리고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와 공격적인 행동정보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 아동의 연령과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점수

2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점수와 선호도간의 상관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능력이 각 행동정보에 대한 선호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점수간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점수와 선호도간의 상관

| 회상점수 선호도 | 공격적인 행 동 | 친사회적 행 동 | 위축적인 행 동 |
|-------------|-------------|-------------|-------------|
| 공격적인 행동 | -.138 | -.079 | -.111 |
| 친사회적인 행동 | .037 | .005 | -.061 |
| 위축적인 행동 | -.184 | -.176 | -.272*** |

*** p<.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회상점수와 선호도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아동이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회상 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회상 점수와 선호도 그리고,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점수와 선호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6, 8, 10,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타인이 보이는 공격적, 친사회적, 그리고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능력과 선호도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능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능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기억 과제를 사용한 Younger와 Boyko(1987), Younger와 Piccinin(1989)의 연구 결과와는 불일치 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해서는 아동기 초기에도 높은 회상 능력을 보여준다고 밝히면서, 초기 청년기에서의 회상능력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차가 어떤 집단에서의 차이인지를 알아본 결과, 10세와 12세 사이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차는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의 회상 능력에서의 뚜렷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공격적인 행동정보는 타인의 성이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에, 더 많이 회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과 관련된 공격적인 행동정보를 기억할 때에는 여자가 행했을 때보다 남자가 행했을 때 더 주의를 집중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도식에 일치시켜 정보를 처리한다(Koblinsk & Cruse, 1981)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볼 때 아동은 아동기 초기에서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여자의 속성이기보다 남자의 속성에 포함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타인의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타인의 성에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의 회상 수준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 다는 Cole과 그의 동료들(1971)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한편, 타

인의 성에 따른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능력은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비추어 볼 때, 아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지각할 때 이를 특별히 어느 한쪽 성의 범주속에 포함시켜서 지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타인의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Younger와 Boyko(1987) 그리고 Younger와 Piccinin(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Schank와 Abelson(1975)이 제안한대로, 아동은 아동기 중반 이후부터 위축적인 행동에 대해 잘 학습된 개념적 도식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위축성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부호화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타인의 성에 따른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차이가 없었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과정에서 사회적 도식은 연령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한다(Younger & Boyko, 1987)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발달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아동의 회상 능력은 각 행동정보에 따라 다른 발달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가정을 지지하였다. 즉, 6세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를 위축적인 행동정보보다 더 많이 회상한 반면, 10, 12세 아동은 위축적인 행동정보를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보다 더 많이 회상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에서 각 행동정보의 종류에 따른 아동의 회상 발달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동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연령에 따라 각 행동정보에 대한 도식이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가정하에, 어린 연령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도식이 위축성에 대한 도식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Younger & Boyko, 1987).

즉, 아동기 초기에서부터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도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아동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자주 관찰자가 될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Coie & Pennington, 1976; McArthur & Solomon, 1978). 그러므로 아동은 일찍부터 공격적인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도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위축성에 대한 도식이 늦게 출현하는 것은 우선, 위축적인 행동은 행동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동기 초기에는 아동에게 주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아동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위축적인 행동에 아동은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또래의 평정을 이용해서 아동의 지각 발달을 연구한 Younger와 그의 동료들(1985, 1986)이 아동기 초기에는 공격성과 위축성이 거의 구별되지 못했으나, 초기 청년기에는 서로 다른 두 범주로 확실하게 구별하였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위축성에 대한 도식은 아동기 중반 이후에 형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의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서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회상 능력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Ydunger와 Piccinin(1989)이 제안한대로,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정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 연령에서부터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친사회적인 행동이 공격성이나 위축성과 같은 부적응 행동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능력이 각 행동정보에 대한 선호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해서는 아동이 위축적인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회상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그 행동을 더 잘 기억한다는 Butler(1984), Higgins와 그의 동료들(198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에 따른 아동의 회상 발달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로써,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타인에 대한 지각 발달을 밝혀보고자 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라고 하는 것이 실행할 속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정보는 10개 이상이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아동의 사회적 도식의 조직과 주위 지향 기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지각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기 기억을 이용한 연구에서 더 확장시켜 다양한 연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공격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타인의 성이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에, 공격적인 행동정보를 더 많이 회상한다.

둘째, 타인의 친사회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능력은 타인의 성에 관계없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셋째, 타인의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의 회상능력은 타인의 성에 관계없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넷째, 타인의 사회적 행동정보의 종류에 따른 아동의 회상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6세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를 위축적인 행동정보보다 더 많이 회상한 반면, 10, 12세 아동을 위축적인 행동정보를 공격적인 행동정보와 친사회적인 행동정보

다 더 많이 회상하였다.

다섯째, 아동이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위축적인 행동정보에 대한 아동이 회상 능력은 증가한다.

(부록) 연구도구로 사용된 회상 과제

(공격적인 행동)

1. 영수(영희)는 걸핏하면 화를 잘 낸다.
2. 영수(영희)는 친구들을 잘 때린다.
3. 영수(영희)는 욕을 잘 한다.
4. 영수(영희)는 친구들이 노는데 방해를 잘 한다.
5. 영수(영희)는 친구들에게 이유없이 싸움을 먼저 건다.
6. 영수(영희)는 화가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7. 영수(영희)는 친구가 하는 일에 항상 불평만 한다.
8. 영수(영희)는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9. 영수(영희)는 친구들 앞에서 다른 친구의 흠을 본다.
10. 영수(영희)는 화가나면 친구들을 헐박한다.

(친사회적인 행동)

1. 민수(민희)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잘 한다.
2. 민수(민희)는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3. 민수(민희)는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잘 한다.
4. 민수(민희)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잘 가르쳐준다.
5. 민수(민희)는 아래 학년 동생들을 잘 보살펴준다.
6. 민수(민희)는 친구에게 자기것을 잘 빌려준다.
7. 민수(민희)는 친구가 기분이 상했을때, 잘 위로해준다.
8. 민수(민희)는 친구들에게 친절하다.
9. 민수(민희)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10. 민수(민희)는 청소시간에 친구들과 잘 협조해서 한다.

(위축된 행동)

1. 경수(경희)는 친구가 거의 없다.
2. 경수(경희)는 겁이 많다.
3. 경수(경희)는 남이 하자는데로 한다.
4. 경수(경희)는 놀다가 다칠까봐 잘 놀지 않는다.
5. 경수(경희)는 친구들과 같이 놀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6. 경수(경희)는 친구가 때려도 맞고만 있다.
7. 경수(경희)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8. 경수(경희)는 말을 시켜도 말을 잘 하지 않는다.
9. 경수(경희)는 특하면 잘 운다.
10. 경수(경희)는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 하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 이영민. (1987). 아동의 정상동화 도식 기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chenbach, T. M., & Edlbrock, C. G.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 1275-1301.
- Barrett, D. E., & Yarrow, M. R. (1977). Prosocial behavior, social inferential ability, and assertive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475-481.
- Bartlett, F. C. (1977).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kowski, W. M. (1990). Age differences in chil-

- dren's memory of information about aggressive, socially withdrawn, and prosocia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61, 1326-1334.
- Cantor, N., & Mischel, W. (1977). Traits as prototypes: Effects o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8-48.
- Coie, J. D., & Pennington, B. F. (1976). Children's perceptions of deviance and disorder. Child Development, 47, 407-413.
- Cole, M., Frankel, F., & Sharp, D. (1971). Development of free-recall learning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 109-123.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35.
- Hamilton, D. L. (1981).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persons. In E. T. Higgins, C. P. Perman, & M. P. Zanna(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1, 135-159. Hillsdale, NJ: Erlbaum.
- Higgins, E. T., Kuiper, N. A., & Olson, J. M. (1981). Social cognition: A need to get personal. In E. T. Higgins, C. P. Perman, & M. P. Zanna(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1, 395-420. Hillsdale, NJ: Erlbaum.
- Hymel, S. (1986). Interpretation of peer behavior: Affective bia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431-445.
- Irwin, D. M., & Bushnell, M. M. (1980). Observational strategies for child stud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Isen, A. M., Shalke, T. E., Clark, M., & Karp, L. (1978).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in memory, and behavior: A cognitive loo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2.
- Jennings, S. A. (1975). Effects of sex typing in children's stories on preference and recall. Child Development, 46, 220-223.
- Koblinsky, S. A., & Cruse, D. F. (1981). The role of framework in children's retention of sex-related story cont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1, 321-331.
- Ledingham, J. E. (1981). Developmental pattern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behavior in childhood: A possible method for identifying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9, 1-22.
- Lewis, M., & Rosenblum, M. A. (1975).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New York: Wiley.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cGilly, K., & Siegler, R. S. (1989). How children choose among serial recal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60, 172-182.
- Murphy, M. D., & Ruff, C. R. (1982). Free recall: Fundamental methodology and analysis. In C. R. Ruff(Ed.),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human memory and cogn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Nesdale, A. R., & McLaughlin, K. (1987). Effects of sex stereotypes on young children's memories, predictions and lik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231-241.
- Pekarik, E., Prinz, R., Lieberts, D., Weintraub, S., & Neale, J. (1976). The Pupil Evaluation Inventory: A sociometric technique for assessing children's 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 83-97.
- Quay, H. C. (1979). Classification. In H. C. Quay & J. S. Werry(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2, 1-42. New York: Wiley.
- Ross, A. O., Lacey, H. M., & Paton, D. A. (1965). The development of behavior checklist for boys. Child Development, 36, 1013-1027.
- Rubenstein, G., Fisher, L., & Iker, H. (1975). Peer observation of student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67-868.
- Shank, R. L., & Abelson, R. D. (1975). Scripts, plans and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ongr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bilisi, Russia, August.
- Taylor, S. E., & Crocker, J. (1981). Schematic bas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E. T. Higgins, C. P. Perman, & P. Zanna(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1, 89-134. Hillsdale, NJ: Erlbaum.
- Taylor, S. E., Fiske, S. T., Etcoff, N., & Ruderman, A. (1978). the categorical and contextu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Younger, A., & Boyko, K. (1987). Aggression and withdrawal as social schemas underlying children's peer perceptions. Child Development, 58, 1094-1100.
- Younger, A., & Piccinin, A. (1989). children's recall of aggressive and withdrawn behaviors: Recognition memory and likability judgments. Child Development, 60, 580-590.
- Younger, A., Schwartzman, A., & Ledingham, J. (1985). Age-related changes in children's perceptions of aggression and withdrawal in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0-75.
- Younger, A., Schwartzman, A., & Ledingham, J. (1986). Age-related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deviance: Changes in behavior or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31-542.